

제천시의회의원선거 제천시가선거구

봉양/송학/백운

제천의 관문을
쾌적하고 살기 좋게
우리 동네 **시의원**

우리 동네엔
병기가 있습니다
관문이 살아야
제천이 빛납니다

제천의 관문을 살릴 최종병기

1 안병기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천시의회의원선거 (제천시가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민주당	안병기	남	1966.02.25. (60세)	정당인	세경대학교 호텔관광레저과 졸업	(전)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충북본부회계감사 (전)봉양농협 근무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26,576	141,166	96,528	부:23,290 모:10,774	장녀: 94,818 장녀: 60,000	육군 병장 (만기전역)	-	장남: 육군 병장 (만기전역)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7,962	0	0	-해당없음
후보자	3,015	0	0	
배우자	57	0	0	
직계존속	부: 신고거부, 모: 신고거부			
직계비속	4,890	0	0	

4. 소명서

관문이 흔들리면 제천 전체가 흔들립니다

봉양, 송학, 백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학전국민학교와 봉양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고향의 논두렁과 밭두렁이 저를 키웠고
이 땅의 흙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봉양농협에서 농민들의 땀과 고단함을 곁에서 지켜봤고,
노동조합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제천의 관문입니다.
KTX가 지나고, 도로가 뻗어나가는 이 관문이
낙후되고 사람이 떠나면 제천 전체가 흔들립니다.
관문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지역 발전이 아니라,
제천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 안병기는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실천으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최종병기'라는 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지역을 지키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우리 동네 시의원
1 안병기

관문이 살아야 제천이 빛납니다

첫 인상이 도시의 미래입니다.

송학, 백운, 봉양은 제천의 첫인상

우리 지역은

외지에서 제천으로 들어올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제천의 얼굴입니다.

관문마을의 풍경과 활력이 곧 제천 전체의 이미지가 됩니다.

첫 인상이 어둡고 침체되어 있다면 도심의 매력까지 떨어집니다.

관문의 부흥이 제천 발전의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관문 마을의 뼈아픈 현주소

청년은 떠나고 고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마을의 기초적인 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정책이 도심 인프라에 집중되면서, 외곽 관문 마을은 상대적으로
투자에서 소외되고 정주여건은 악화되었습니다.

빈집이 늘고 상권이 쇠퇴하면서 관문으로서의
활기찬 역할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엔 '병기'가 있습니다.

관문을 아는 사람이 관문을 살립니다.

송학의 빈 들판을,

봉양역 앞 꺼진 불빛을,

백운 고갯마루 쓸쓸한 길을

직접 걷고, 직접 보고, 직접 느껴 본 사람.

안병기는 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민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원이 왜 생겼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안병기가 관문을 지키겠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안병기의 약속

시의회는 예산을 나눕니다.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가 마을의 생사를 가릅니다.
도로 하나, 가로등 하나,
청년이 앉을 벤치 하나.

안병기는 그 예산을 송학으로, 봉양으로, 백운으로 끌어오겠습니다.
도심권 시의원을 상대하며 변방 마을의 예산을 챙길 사람.
관문을 지키는 사람,
변두리를 챙기는 사람,
작은 마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시의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엔 병기가 있습니다

우리동네 숙원사업 안병기가 합니다



1 마을특별시 제천! 핵심 거점

마을 특별시는 마을 사업을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해서 특별한 마을을 만드는 마을 자치 사업입니다.
송학·봉양·백운이 제천 자치의 출발점입니다.

2 생활 인프라 전수 정비

방치된 도로·가로등·공공시설, 임기 내 전부 손봅니다.
송학·봉양·백운, 더 이상 순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작은 마을도 제천 예산의 주인입니다.

3 빈집·빈땅, 청년의 땅으로

관문 마을 빈집과 유휴지를 청년 창업·귀농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정착 초기 3년, 시의회가 제도로 뒷받침합니다. 사람이 돌아와야 마을이 삽니다.

4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직판장

제천C와 38번 국도 길목에 드라이브 스루 직판장을 설치해 통과하는 차를 머무는 손님으로 만듭니다. 지역 농가 소득을 직접 올리고, 관문 마을의 첫인상을 활기차게 바꿉니다.

5 생태관광 및 귀농귀촌 거점 육성

백운의 산세와 봉양·송학의 자연환경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만듭니다.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관문 마을을 제천 인구 회복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제천시장 공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봉양** - 봉양 공중목욕탕 건립
- 봉양-신림 간(국도5호선) 조기 완공(11.2km)
- **백운** - 박달재 숲속 도서관 건립(폐 숯가마 활용)
- 백운 파크골프장(평동 혹은 방학) 건립
- **송학** - 야외 스포츠 파크 조성(+어린이 공원)
- 송학면~아세아시멘트 간 도로확장(2.7km)
- 38국도 무도교차로 오름차선 확장(2차선 423m)





마을 복지, 안병기의 각오

송학이 웃고,
봉양이 살고,
백운이 빛나는 날까지
안병기,
끝까지 관문 마을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 동네엔
병기가 있습니다

관문 마을 문지기
1안병기

**느티나무 아래 평상이 사라지고
마을에 싸움이 잦아졌다.**

어르신들이 모이던 평상 하나가 없어지면
대화가 끊기고, 오해가 쌓이고, 마을이 멀어집니다.
복지는 거창한 시설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 마을커뮤니티센터를 관문 마을 거점에 설치합니다.

주민이 모이고,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하는 공간—
느티나무 평상의 정신을 건물 안에 살려내겠습니다.

둘. 식품사막을 막겠습니다.

가게 하나 없는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밥 한 끼를 굶지 않도록 먹거리 접근 체계를 만듭니다.
장보기 지원, 공동 식재료 배송, 마을 공동 냉장고
작지만 생명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셋.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버스가 하루 두 번인 마을에서
병원 한 번 가려면 만나절이 사라집니다.
천원택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의료기관 연계 이동 서비스
움직일 수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앉아 어른들 이야기를 들었고
그 평상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시의원이 된다는 것은
그 평상을 다시 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이게 하고, 외롭지 않게 하고,
떠나지 않아도 되는 마을을 만드는 일.

송학이 웃고, 봉양이 살고, 백운이 빛나는 날까지
안병기, 끝까지 관문 마을 곁에 있겠습니다.



밥값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로 크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란답니다.
농촌에서 흙과 함께
정직하고 부지런히 살아오신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봉양중(10회)
제천농고(37회)현)제천제일고
세경대학교 졸업
기아자동차 근무(전)
봉양농협 근무(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 회계감사(전)
제천시장애인단체연합회 자문위원(현)

우리 동네 문지기
안병기 1